

토정비결

1981년 4월 26일 | 양력 | 남성

토정수

449

연운 (한 해의 운세)

올해는 마치 구름 사이로 밝은 달빛이 비치듯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해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린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 차근차근 쌓아온 실력과 덕망이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찾아오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반기에는 재물운이 상승하여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가짐과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면 뜻하는 바를 이루는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 ##

1월

새해 첫 달, 만물이 기지개를 켜듯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며, 윗사람의 도움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한 해의 계획을 세우면 큰 복이 됩니다. ##

2월

귀한 손님이 찾아오는 달로, 오랜 친구나 은인과의 만남이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대인관계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되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작은 모임이나 약속이 훗날 큰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

3월

봄기운과 함께 재물운이 움트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이득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된 마음으로 기회를 잡으십시오.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활력이 넘치는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

4월

학문이나 기술을 익히기에 더없이 좋은 달입니다. 새로운 공부나 자격증 준비를 시작하면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십시오. ##

5월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달입니다. 가족들과 여행이나 나들이를 계획하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

6월

협력과 동업의 운이 강한 시기로, 뜻을 함께 하는 사람과 손잡으면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사업이나 프로젝트 진행 시 주변의 조언을 경청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재물운도 꾸준히 상승하니 장기적인 투자나 저축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

7월

여름의 뜨거운 기운처럼 활동력이 왕성한 달입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예상보다 빠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두르기보다는 한 걸음씩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니 차분함을 잊지 마십시오.##

8월

귀인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달입니다. 평소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돋독히 해온 덕분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작은 것이라도 보답하는 자세가 더 큰 복을 부릅니다.##

9월

결실의 계절답게 그동안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승진, 계약 성사, 수입 증가 등 기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올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변과 기쁨을 나누면 운이 더욱 상승합니다.##

10월

안정적인 운세 속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 달입니다.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며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화목에 신경 쓰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11월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가 찾아오는 달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학습운이 좋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역량을 키우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행운을 불러옵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뿌듯함을 느끼는 달입니다. 올해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년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십시오. 연말 모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토정비결 활용 조언** 한 해 동안 겸손과 성실의 자세를 잊지 않으신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돋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늘의 복이 함께합니다. 건강을 돌보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人和天時 福祿自來 (사람이 화목하고 때를 따르면 복록이 저절로 옵니다)

토정비결은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 선생이 만든 운세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